판단의 자격

관심사 독해 리포트 · 2026년 11월 1일자 수집분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와 접근 중단 5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를 뺀 12개 모두 접속됨. 전날 새 글 10편을 모두 읽고 9편을 다뤘으며, 1편(마지널 레볼루션의 토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 9+1=10.

오늘 모인 글들은 판단의 자리에 선 여러 주체를 보여 준다. 인공지능이 한 블로그의 4만 개 아카이브를 뒤져 '최악의 글'을 골라내고 — 그 심사를 의뢰한 것은 정작 그 블로그의 주인이다 — , 인공지능이 유명 학술지 논문에 '공정한 판정'을 내리라는 주문을 받고, 인공지능의 추론 방식 자체가 심판대에 오른다. 유권자라는 심판관의 판단을 분석하는 정치 에세이가 있고, 하루 전날 세상을 떠난 노벨상 경제학자의 일생을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보여 주는 부고가 있다. 누가 무엇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 오늘의 질문이다.

---

1. 블로그가 자기 자신을 심사대에 올리다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에 실린 이날의 기획은 이렇다. 운영자 타일러 코웬이 대화형 인공지능(ChatGPT)에게 자기 블로그의 전체 아카이브 — 다운로드된 40,326개의 글 — 를 주고 "가장 논리가 나쁘고, 추론이 엉망이고, 가치가 낮은 글"을 골라 보라고 시켰다. 인공지능은 먼저 방법론을 선언한다 — 이것은 4만 개 전체의 객관적 순위가 아니라 '증거와 결론 사이에 특정한 틈이 있는' 후보들의 잠정 목록이며, '나쁜 추론'과 '낮은 가치'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섯 편을 골랐는데, 그중 세 편이 코웬 자신의 글이다. 지적된 결함들은 구체적이다. 2022년의 한 글은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혼동했다 — 유권자가 선출된 정치인이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킬까 걱정하는 것과, 자기가 싫어하는 결과를 낸 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명제인데 그 글은 어느 쪽인지 입증하지 않았다. 2016년의 한 글은 남성의 경제적 곤경, 성역할 변화, 정치적 분노를 'brutes(야만적 남성)'라는 하나의 라벨로 묶었는데, 라벨이 설명 작업을 대신한다 — 야만적이니까 그런 정치를 지지하고, 그런 정치를 지지하니까 야만적이라는 순환이다. 2018년의 한 글은 "미국 정부가 너무 크고 다뤄지기 어려워 미국식 파시즘은 일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중요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뒷받침되는 명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범주적 불가능 명제로 둔갑했다. 영화 「기생충」 비평은 "이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영화가 말해 주는 것"이라는 한 문장이 바로 그 비평이 입증해야 할 명제를 입증 없이 단정한 사례로 지목됐다.

인공지능이 정리한 재발 패턴은 세 가지다 — 확신이 논증을 앞선다("~할 수 없다", "분명히"), 반대 입장에는 덜 관대한 독해를 적용한다, 흥미로운 메커니즘 하나가 완전한 설명으로 승격된다.

[해석] 이 리포트가 나흘째 추적하는 'AI 감사' 꼭지의 가장 흥미로운 변주다. 익명 프로젝트의 타인 논문 감사(10월 29일), 그 감사를 다시 감사한 AI(10월 30일), 감사 측의 자체 수정판(10월 31일)을 거쳐, 이제는 한 매체가 자기 자신의 글들을 심사대에 올리고 그 결과를 자기 지면에 그대로 실었다. 심사의 정당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심사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라는 점을 이 실험이 보여 준다. 물론 인공지능의 지적 자체가 옳은지는 독자가 원문과 대조해 봐야 할 문제로 남는다 — 심사 결과의 공개는 심사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

2. AI 심사관 시대 — 판정과 역추론

[사실] 같은 날 두 개의 짧은 글이 같은 질문을 다룬다. 첫째, 경제학자 매슈 칸은 명문 학술지 『분기 경제학 저널(QJE)』의 기후변화 경제학 논문 하나를 인공지능 심사 도구에 올리고 자신의 비평문을 함께 입력한 뒤 "공정한 판정"을 요청했다. 그는 그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고, 이런 판정 모음집을 '특별호'로 발간하는 새로운 종류의 학술지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둘째, 경제학자 브라이언 캐플런은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 정면으로 묻는다 — "당신들은 나쁜 베이지안(Bayesian, 새 증거가 나올 때 기존 믿음을 체계적으로 갱신하는 추론자)이다. 반례를 제시하면 그것이 기대보다 강한 논거인지 약한 논거인지에 따라 양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당신들은 제시자 쪽으로만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답한다 — "당신은 AI 추론의 진짜 실패 방식을 지목했다. 대규모 언어모형은 그럴듯한 반론을 그 결론에 대한 증거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그 반론이 자기가 들었어야 할 기대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재지 않는다." **[해석]**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AI에게 '공정한 심사관'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지만(10월 29일의 King-Worthington 논문이 보여 준 'AI가 인간 심사관보다 낫다'는 결과까지), AI의 가장 잘 알려진 버릇 — 대화 상대에게 맞춰 주는 성향 — 은 바로 심사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다. 칸의 실험이 의미를 가지려면, 캐플런이 지적한 역추론 실패가 도구 수준에서 제어되어야 한다. "고칠 것인가, 고칠 수 있는가, 프롬프트만으로 되는가"라는 코웬의 세 연속 질문이 이 꼭지의 미결 과제다.

3. 윌리엄 노드하우스(1941~2026) — 혁신의 2.2%를 잰 사람

[사실]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석좌교수가 10월 30일 85세로 별세했다. 교모세포종(공격적 뇌종양)과의 투병 끝이다. 예일대 부고와 크루그먼의 추도가 두 피드에 동시에 실렸다.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은 '기후변화를 장기 거시경제 분석에 통합'한 2018년 노벨 경제학상(폴 로머와 공동 수상)이다. 그의 대표 도구인 DICE 모형(동적 통합 기후-경제 모형)은 탄소 배출, 기후변화, 경제성장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틀로 묶어, 정책 입안자가 기후 피해의 경제적 비용(작물 손실, 해수면 상승 등)과 감축 비용을 같은 저울에 올리게 했으며, 탄소세의 효율성과 적정 수준을 추정하는 골격이 됐다. 2017년 그가 제시한 적정 탄소세는 톤당 약 30달러(범위 6~93달러로 큰 불확실성 인정)였고, 후년에는 자발적 협약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탄소가격에 합의한 나라들이 비참여국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기후 클럽'을 제안했다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장치(CBAM)가 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사실] 이 리포트의 독자에게는 다른 업적 하나가 친숙하다. 사흘 전 부유세 꼭지에서 인용한 그 숫자 — 혁신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 잉여의 2.2%만 가져갔다 — 가 바로 노드하우스의 2004년 논문 「슘페터적 이윤」의 추정치다. 기술 진보의 혜택 대부분(97.8%)은 낮은 가격과 새 재화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넘어간다는 이 측정은, 부유세 논쟁 양쪽이 오늘도 인용하는 기준점으로 남아 있다. 그 밖에 그는 새뮤얼슨의 교과서 『경제학』의 공동저자로 19판까지 참여했고, 카터 행정부 경제자문위원, 예일대 학무총장을 지냈으며, 2014년 예일대 내부 탄소가격 제도를 설계해 자기 이론을 자기 학교에 먼저 적용했다. 말년에는 경제학 교과서를 무료로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해석]** 노벨 연설에서 그는 기후 대응의 장애물을 두 부류로 나눴다 — "진짜 장애물(기술, 국제 제도)에는 과학자와 공학자의 헌신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장애물(오염자들의 재정적 이해관계, 일부 정치인들의 터무니없는 논거)에는 교육과 인내로운 반박이 필요하다." 이틀 연속 이 리포트에 등장한 '측정'의 언어 — 혁신의 잉여를 재고, 지구의 온도를 계좌에 올리는 — 를 반세기 동안 다듬은 사람이 갔다.

4. 사설의 계산 — 관세, 성장률, 그리고 캔디

[사실] 카페 하이에크의 링크 모음이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3분기 GDP 3.4%(이 리포트 10월 31일자 1장 참조)를 두고 "관세와 추방이 없었다면 더 강했을 것"이라고 논평한다. 사설이 드는 숫자들 — 제조업 공장 투자는 3분기에 4% 감소했고 현 행정부 2기 들어 36% 줄었다. 미국 철강 가격은 1년 새 52% 올라 유럽보다 3분의 2가량

높은데, 이는 철강을 쓰는 가전·기계·전력설비 제조업체에는 치명적인 원가다. 주택은 3분기 GDP에서 0.12%포인트를 갉아먹은 항목이며, 건설사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 존 번스 리서치의 조사에서 건설사의 거의 3분의 2가 이민 단속이 인력에 영향을 준다고 답해 1년 전(13%)의 다섯 배가 됐다. 이민 단속으로 쇠고기 가공 공장들이 생산을 줄였고, 육류업계 단체들은 "합법적이고 서류를 갖춘 숙련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소 사슬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소비자 가격 상승을 경고했다. **[해석]** 이 리포트가 사흘 전 전한 우(Ruohan Wu)의 논문 — 관세가 쇠고기 값을 8~11% 올렸다 — 에 노동 공급 충격이라는 두 번째 상승 압력이 겹쳐지는 그림이다. 가격표 하나에 관세와 이민정책이라는 두 개의 정책 계산서가 함께 붙는다. 본 단락의 숫자들은 사설을 인용한 2차 인용이다.

[사실] 같은 링크 모음에서 미건 맥아들의 캔디 칼럼은 다른 종류의 오판을 다룬다. 초콜릿바가 작아지고 식감이 나빠지는 데 대한 '기업 탐욕' 설명을 그는 이렇게 끊는다 — "기업은 1928년에도, 1978년에도 똑같이 탐욕스러웠다. 탐욕은 광속(光速)처럼 상수다. 상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진짜 설명 변수들은 코코아 가격 폭등(2022~2024), 신선도 유지 기술의 발달, 그리고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하는 평균 소비자다. 기업은 소비자가 '비싼 정품'과 '싸고 작고 오래가는 대체품' 중 어느 쪽을 참는지를 추측해서 제품을 설계할 뿐이며, 그 추측이 틀릴 수는 있어도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인간의 오류 가능성의 문제다. **[해석]** '나쁜 결과 → 나쁜 동기' 추론은 이 리포트가 오늘 1장에서 본 '재발 패턴'(메커니즘 하나를 완전한 설명으로 승격)의 일상 버전이다. 상수로는 변수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 문장이 칼럼 전체의 힘이다.

---

5. 소비자 후생 기준은 '물건'만의 기준이 아니다 — 한서한의 철학

[사실] 카페 하이에크의 부드로가 오랜 보호무역 논적에게 보낸 공개서한은, 경제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를 정면으로 다룬다. 오렌 캐스(보호무역론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는 자유무역론의 '소비자 후생 기준'을 "싼 물건을 얻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시장 원리주의"라고 비판한다 — 일자리 안정 같은 '더 높은' 비물질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부드로의 반박: '소비(consumption)'란 물건이 아니라 '목적(end)'을 뜻한다 — 평화로운 것이라면 어떤 목적이든. 소비자 후생 기준은 목적의 내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입법·행정·사법이 어떤 시민의 목적을 다른 시민의 목적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뿐이다. 특정 일자리를 지키는 관세는, 보호받는 노동자의 목적(고용 안정)을 수입품을 사려던 동료 시민의 목적 위에 올려놓는 것 — 후자가 전자의 고용 안정을 강제로 보조하게 만든다. 그리고 노동자도 시장 안에서 고용 안정을 '소비'할

수 있다 —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대가로 더 높은 고용 안정을 사는 식으로. 비물질적 목적도 자기 돈으로 추구하라는 것이 이 기준의 요구 전부다. **[해석]** 이 논증의 강점은 도덕적 우위의 판을 뒤집는 데 있다 — 보호무역론자는 '높은 가치'의 수호자가 아니라 '어떤 시민의 목적을 다른 시민의 목적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는 것. 물론 이것도 논쟁의 한쪽 진영의 정리이며, 시장에서 '고용 안정을 사는' 선택지가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지는 이 서한이 답하지 않는 물음이다. 같은 날 '오늘의 인용'(스테퍼니 슬레이드 신간 『융합주의』)의 한 문장이 이 서한의 고전적 뿌리를 보여 준다 —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는, 사람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법에 의해 자기가 보기에 적합한 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

6. 민주주의는 투표용지에 없다 — 한 정치 에세이의 진단

[사실] 크룩드 팀버에 실린 정치 에세이(저자의 논지를 그대로 요약한다)는 미국 중간선거 국면을 분석한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주의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는 구호는 아무 효과가 없었고, 이번 선거 운동에서는 사라졌다 — 저자의 해석은, 유권자의 상대다수(복수)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선택을 할 의향이 있고 과반은 반대하거나 기권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2024년의 더 큰 교훈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도 민주주의 훼손 때문이 아니라 통상적인 이유 — 물가를 낮추겠다더니 올랐고, 중동 전쟁에 안 들어가겠다더니 들어갔다 — 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저자의 읽기다. 그래서 야당이 택한 '생활비(affordability)' 프레임은 정권 심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에세이의 제1주장이다 — 그 프레임은 정상 정치의 모델(경기가 나빠지면 정권 교체)을 전제하므로. 저자가 보는 유일한 밝은 지점은 부패 이슈로의 전환이다 — 부패는 추상적 민주주의와 달리 이해하기 쉽고 숨기기 어려우며, 헝가리 오르빈의 참패(수영장 두 개 딸린 별장의 항공 사진)를 전례로 든다. 단 인식이 현실과 일치해야 하므로 야당 자신의 부패도 용납해선 안 되고(신뢰할 만한 의혹이 나오자 유력 후보를 버린 사례를 긍정 평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당원로' 대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석]** 유권자라는 심판관이 '민주주의'라는 추상 항목에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생활비'와 '부패'라는 구체 항목에는 점수를 매긴다는 관찰은, 정당 전략을 넘어 '유권자는 무엇을 판단하는가'라는 정치학의 오래된 질문에 속한다. 이 리포트는 저자의 정치적 평가를 인용 범위 안에서 전하며,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

> **짧은 메모 — 비자가 만든 범죄 산업.** **[사실]** 시카고 교외의 한 남성이 연방 교도소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2024년 전국 수백

> 건의 '가짜 무장 강도'를 조직한 혐의다 — 가짜 피해자를 모집하고, 점포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장소를 빌리고, 가짜 강도를 고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코치했다. 수천 명이 건당 5,000~3만 달러를 내고 '피해'를 당했는데, 목적은 U비자 — 특정 범죄의 피해자이자 수사에 협조한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 — 의 신청 자격이었다. **[해석]**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 만든 제도가 범죄 연출 산업을 낳은 사례다. 어제의 '보이지 않는 계산서'와 이어지는 그림 — 인증 자격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자격을 생산하는 시장이 생기고, U비자의 인증을 발급하는 지방 경찰의 '확인서'가 이 산업의 진짜 상품이었다.

오늘의 필독 링크

· 최악의 MR 포스트는? — 아카이브 자기 감사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what-are-the-worst-mr-posts.html

· LLM은 좋은 베이지안인가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are-llms-good-or-bad-bayesians.html

· AI 판정의 시작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and-so-it-begins-2.html

· 노드하우스 부고 (Yale News): https://news.yale.edu/2026/10/31/william-nordhaus-nobel-laureate-who-integrated-economics-and-climate-change-devoted-yale

· 노드하우스 RIP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william-nordhaus-rip.html

· 소비자 후생 기준 서한 (Cafe Hayek): https://cafehayek.com/2026/11/the-consumer-welfare-standard-isnt-only-about-consumer-goods-and-services.html

· 링크 모음 — WSJ 사설·캔디 칼럼 외 (Cafe Hayek): https://cafehayek.com/2026/11/some-links-3224.html

· 민주주의는 투표용지에 없다 (Crooked Timber): https://crookedtimber.org/2026/11/01/democracy-is-not-on-the-ballot-affordability-is-not-the-answer/

· U비자 가짜 강도 사건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those-new-service-sector-jobs-18.html